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4·5월(제5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2021년 국제정책과 일동 인사드립니다!

오이타현청 국제정책과 소개 오이타시

平川 暢教
과장 **히라카와 마사노리**

코로나19로 왕래가 어려운 지금, 세계에서 활약 중인 여러분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오이타를 더욱 뜨겁게! 알리겠습니다.

島﨑 和夫
참사(총괄) **시마자키 가즈오**

- 여권 심사 총괄
- 여권반 인재 육성

阿南 大輔
주간(총괄) **아나미 다이스케**

- 해외 전략 추진(총괄)
- 과 인재 육성

山﨑 基広
주간 **야마사키 모토히로**

- 해외 전략 추진
- 해외 프로모션 담당
- APU 신(新)학부

佐藤 佳香
주사 **사토 요시카**

- 외국인 인재 수용 및 공생 업무 (현 내 재류 외국인 지원)
- 도비타테! 유학 JAPAN

村上 美夕紀
주임 **무라카미 미유키**

- 여권 심사 및 우편 발송
- 여권 업무 위탁
- 여권반 예산 담당

安部 舞
주임 **아베 마이**

- JET 프로그램
- 국제교류원 담당
- 일본어 파트너스

重石 麻衣
주사 **시게이시 마이**

- 유학생 취업/창업 지원
- 아시아 비즈니스 연수회 담당
- 중국 후베이성 교류 담당

千原 沙依
주사 **지하라 사에**

- 외국인 종합 상담 센터
- 유학생 장학금 담당
- 예산/결산/감사 담당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4·5월(제5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온천은 아니지만 그만큼 뜨겁다는 거지~

야외 사우나 소개 분고오노시 豊後大野市

'온천현 오이타'의 지역이지만 온천은 없는, 하지만 온천보다 더 뜨겁게 야외 사우나 열풍이 불고 있는 이곳은 분고오노(豊後大野)입니다.

'분고오노 온천현 사우나 연구소(おんせん県いいサウナ研究所)'에서는 온천 시설이나 목욕탕이 아닌 대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사우나 모델을 제시합니다. 강가 사우나, 종유석 동굴 사우나, 개별 사우나룸 등 분고오노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사우나를 만나보세요!

분고오노 마스코트 캐릭터 '헵타곤', 유튜버 전격 데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3월, 유후의 두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다

구다이본선 복구&마차 재개 由布市 유후시

지난 3월 1일, JR 유후인역(由布院駅)에서 '구다이본선(久大本線) 유후인역 복구공사 완공 개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7월 호우 피해로 운행이 잠정 중단되었던 구다이본선은 이번 복구공사가 완료되며 8개월 만에 전 노선이 복구되었습니다.

개통식 당일에는 관계자를 비롯하여 철도 팬들, 현 유후인역장과 전 유후인역장 부부가 참석하여 유후인노모리(ゆふいんの森, 특급열차)의 출발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운행을 쉬었던 관광 마차 운행식도 열렸습니다. 작년에 비해 다소 축소된 규모로 개최되었지만 운행식 후 관계자를 태운 마차가 경쾌한 말발굽 소리를 내며 유후인 분지를 달리는 모습은 봄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해 주었습니다.

유후시 관광 정보 http://www.city.yufu.oita.jp/kankou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4·5월(제5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분고오노 국제교류의 주역, 5년의 임기를 마치다

국제교류원 박새미나 인터뷰 분고오노시

오이타현 분고오노시(豊後大野市)에는 2016년부터 한일 교류 사업, 통번역, 한국어 수업 등을 담당하며 국제교류 최전선에서 활약한 한국인이 있다. 그의 이름은 '박새미나'.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분고오노시를 방문했다.

-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분고오노 시청에서 국제교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새미나입니다.

- 주로 하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한국어 교실, 문화강좌, 홈스테이 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은 일주일에 3번 수업이 있고요, 문화강좌는 일 년에 4~5번 정도, 홈스테이 교류는 매년 여름과 가을에 한 번씩 부산 기장군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번 연도 4월에 교류원 임기가 끝날 예정이라 요즘은 조금씩 업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 어떤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웃음), 이번 주에 한국어 교실 마지막 수업이 있고요, 지금 지면으로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 이벤트요?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지면을 통해서 가로세로 퀴즈 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분고오노시 국제교류협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실어서요. 국제적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의 퀴즈고 추첨을 통해 20분께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 하던 문화강좌에서는 어떤 것을 하셨나요?

보통 계절에 맞는 한국요리 강좌를 해요. 설날에는 만두도 같이 만들어서 떡만둣국을 만들었고요, 여름에는 복날을 설명하며 백숙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치 요청이 많았는데,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신 물김치를 만들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맵지 않아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 요리 말고 한지공예도 했었어요.

- 가장 보람을 느꼈던 업무는 무엇인가요?

홈스테이 교류요. 중학생, 성인 교류가 있는데 중학생 교류를 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 외국문화를 접할 일이 많지 않고, 밖으로 잘 안 나가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 3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그것도 모르는 사람 집에서 생활하면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한국 아이돌밖에 모르거나, 편견이나 환상을 가진 아이들이 진짜 한국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는 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류 후에 아이들이 쓴 감상문을 보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너무 좋았다', '뉴스에서 보면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나왔는데 가 보니 친절하고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4·5월(제5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따뜻하게 대해줬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걸 보면 아이들이 영향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끼죠.

- 교류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홈스테이 교류 전에 하는 사전 연수 때에 교류 참가자에게 만약 어떤(부정적인) 일을 겪으면 그게 '한국인이라서, 일본인이라서 그렇다' 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그 사람이 그런 거지, '그 나라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하고 새로운 편견을 가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문화를 알려드리면서, '보편적이긴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알려드려요. 화장실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리는 것이 보편적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려서 문화 차이로 인한 다른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새미나씨가 생각하는 '교류'란 무엇인가요?

서로가 생각했던 나라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도 교류라고 생각하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교류라고 생각해요. 정말 교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 주제나 태도가 다르거든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난 일 년 동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어요. 저희 시에서 하는 교류는 주로 대면 교류였는데 그게 어려워지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거든요. 제일 보편적인 교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교류가 아닐까 싶어요. 한편으로는 이전에 기장군에서 마스크를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걸 보면 만나지 않아도 교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고오노시 주민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것도 교류이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면을 통해 이벤트를 하며 교류를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요즈음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머릿속 99%가 이사 생각뿐입니다(웃음). 이 많은 짐을 어떻게 다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분고오노시에 도서관이 새로 개관해서, 한국에 귀국하기 전까지 최대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독서 좋아하세요?

사실 독서보다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좋아합니다. 조용하고, 제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아서요. 이번에 분고오노시 도서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케타시 도서관에 다녔더랬죠(웃음).

샐러드 플레이트(たっぷりサラダ)

- 그럼 분고오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도서관인가요?

아니요, 여기요. '모리노카페 유루리(森のカフェゆるり)'. 여기 샐러드드레싱이 맛있어요(웃음). 샐러드에도 야채가 풍부하고, 또 계절 야채를 주기도 하니까 다양하고 좋아요. 제가 직접 챙겨 먹기는 어려운데 계절별로 이것저것 먹을 수 있고, 또 생각치 못한 조리법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4·5월(제5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혹시 샐러드인가요?

사실 다 잘 먹어요. 그런데 분고오노에 와서 좋아하게 된 음식은 '당고지루'예요.

- 일본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나요?

입사 동기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 놀러 가보는 거였어요. 구마모토, 나가사키, 야마구치, 고치, 시즈오카, 이시카와, 니가타, 야마가타, 아키타.. 규슈에서 혼슈 끝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자랑거리예요(웃음).

- 분고오노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새미나씨에게 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원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곳에서는 일하려면 제가 그렇게(남 앞에서) 해야 하니까 변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변한 걸 보면 스스로도 신기해요. 행사 때도 농담하면서 사회 보는 저 자신이 가끔 놀라울 때도 있어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요. 약간 인격이 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니까요.

- 어떤 점들이 영향을 준 것 같나요?

업무 환경이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일본에서 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혼자서 생활하는 생활력이 길러진 듯해요.

- 분고오노 시민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오늘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웃음). 좀 추상적이긴 한데, 밝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5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한 것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대학에서 일본학 공부를 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하다 선택한 게 국제교류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일본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 5년 임기를 마치셨어요.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마을만들기 추진과(まちづくり推進課)'에 소속돼있는데, 마침 대학생 때 마을만들기에 대해 연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읽은 논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마을만들기'란 마을을 발전시켜서 사람을 불러모으는 것으로, 그 마을을 좋아하지 않으면 모일 수 없다. 결국 마을만들기는 '마을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늘리는 것이며, 그 마을의 팬을 만드는 것'이다〉.

분고오노시,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생소한 곳이었는데 5년 동안 살면서 분고오노를 속속들이 알게되다니 결국에는 저도 이 도시의 팬이 되었구나, 하고 느껴요. 제가 아마 한국 분고오노 1호 팬이지 않을까요?(웃음) 물론 5년 동안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구석구석 알게 됐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행복한 5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인터뷰일 : 2021년 3월 15일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oita.jp)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4·5월(제5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버스타고 편하게 지옥순례 체험하겠습니다.
~ 근데 이제 스파르타를 곁들인 ~

벳푸 지옥순례 관광버스 벳푸시 別府市

한국인은 '일본'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 초밥, 기모노, 애니메이션 등. 그중에서도 모두가 꼭 떠올릴 키워드가 바로 '온천'이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유독 사랑받는 일본 온천 명소 중 한 곳이 바로 여기, 오이타현이다.

한국인에게 많이 알려진 '벳푸(別府)', '유후인(湯布院)'은 모두 오이타 현 내의 지역이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오래전 부터 한국과 오이타의 하늘길은 연결돼 있었는데, 지난 2015년 대한항공이 온천특수를 위해 겨울 시즌 한정으로 취항을 시작한 이후로 티웨이 항공에서도 서울, 부산, 무안 등 전국 각지 공항에서 오이타 직항편 운항을 시작하며 하늘길이 활발해졌다. 당시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오이타, 기타큐슈, 시즈오카 등 소도시 여행이 유행한 것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몫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일단 저렴한 항공편에 몸을 실어 오이타에 왔는데, 그들이 무조건! 방문했던 관광지가 바로 오늘 소개할 '벳푸 지옥 순례(別府地獄めぐり)'이다. 지옥온천 곳곳에 한국어로 설명이 가득 적혀있는 걸 보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 한국인에게 왜 그리 인기가 많았는지 그 이유를 '벳푸 지옥 순례 정기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알아보고자 한다.

- 지옥 순례 정기 관광버스(地獄めぐり定期観光バス)

벳푸 시내에는 일반 온천뿐만 아니라 '지옥온천'이라 불리는 관상용 온천이 무수히 많다. 그중 현재 벳푸 지옥조합(別府地獄組合)에 가입된 온천은 총 7곳으로(바다지옥(海地獄), 스님지옥(鬼石坊主地獄), 가마솥지옥(かまど地獄), 악어지옥(鬼山地獄), 흰연못지옥(白池地獄), 피연못지옥(血の池地獄), 회오리지옥(竜巻地獄)), 이 지옥들을 둘러보는 것을 '지옥 순례(地獄めぐり)'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온천이 가까이에 모여있지 않아 뚜벅이 여행자들이 온천을 둘러보기 힘들어 고안된 것이 바로 '벳푸 지옥 순례 정기 관광버스'이다. 일본 내 최초로 여성 가이드가 탑승하여 벳푸와 지옥온천을 설명해주는 이 관광버스는 무려 1928년에 만들어진 오랜 역사를 지닌 버스이다.

2021년 4월 기준 요금은 성인 3,900엔으로 7지옥의 입장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약 3시간 만에 모든 지옥을 둘러볼 수 있지만 중간중간 걸어서 이동하기도 하고 재빠르게 액기스만 보기 때문에 약간 스파르타식(?)이다. 버스는 하루 2회 운행하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후 '기타하마 버스센터(北浜バスセンター)'나 벳푸역에서 탑승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안내가 일본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해도 그 나라 언어로 대응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리 한국어, 중국어 팸플릿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용 전에 연락을 해보자. 비록 한국어 대응은 아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에 알려져 이미 많은 한국인이 이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4·5월(제5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용해왔다. 네이버 블로그 리뷰를 보면 일본어를 몰라 가이드의 설명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편하고 빠르게 모든 온천을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일본어를 할 수 있다면 가이드가 알려주는 벳푸의 이야기나 관광지 소개, 각 지옥온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벳푸 지옥 순례 시에 꼭 이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 바다지옥(우미 지고쿠, 海地獄)

푸른 에메랄드빛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실은 무색투명하다고 한다. 푸르게 보이는 건 온천 성분 때문이며 온도는 98도로 매우 뜨거운 편에 속한다. 바다지옥에는 족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바다지옥 한정 입욕제 등을 살 수 있는 기념품샵이 있다.

- 스님지옥(오니이시 보즈 지고쿠, 鬼石坊主地獄)

지반의 열로 점토가 끓어오르는 모습이 스님의 머리 모양 같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총 4개의 연못이 있는데 이 주변의 땅을 파 보면 다 이런 점토로 되어있다고 한다. 온천 주변의 돌이 붉은빛을 띄는 이유는 철분 때문이다.

- 가마솥지옥(가마도 지고쿠, かまど地獄)

푸른빛, 붉은빛, 점토 등 6개의 각 다른 온천이 모여있어 지옥 순례 종합본이라고 볼 수 있는 곳으로 과거 한국인 관광객 응대가 가장 잘 되어있던 곳이다. 오리지널 간장 푸딩이 유명하며 지옥온천의 증기로 제사음식을 만들어 바치는 풍습에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 악어지옥(오니야마 지고쿠, 鬼山地獄)

말레이시아를 연상해서 만들어진 이곳에서는 온천수를 섞은 물로 약 80마리의 악어를 사육하고 있다. 5엔을 주고 최초로 데려온 악어 '이치로'는 무려 75m까지 자랐는데 죽은 후에도 그의 이름을 계승하기 위해 가장 큰 악어에게 대대로 이치로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4·5월(제5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흰연못지옥(시라이케 지고쿠, 白池地獄)

칼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하얗게 보이지만 수초 때문에 약간의 초록빛도 띈다. 악어지옥과 마찬가지로 온천수와 물을 섞어 동물을 키우는데 이곳에서는 아마존에 서식하는 열대어를 볼 수 있다.

- 피연못지옥(지노이케 지고쿠, 血の池地獄)

산화철, 산화마그네슘의 영향으로 물이 붉게 보이는 온천이다. 이곳의 점토로 만든 외상 연고가 유명한데 화상에 특효라고 한다. 이 날 가이드가 추천한 기념품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毎日が地獄です)'라고 쓰인 티셔츠였다.

- 회오리지옥(다쓰마키 지고쿠, 竜巻地獄)

30~40분에 한 번씩 온천수가 분출되는 간헐천이다. 별명은 '분노의 온천(いかりの湯)'. 분출 시간이 불규칙적이라 온천 맞은편에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6~10분간 솟아오르는 온천을 볼 수 있다.

- 왜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을까?

유독 '오이타 여행'을 검색하면 부모님 세대가 벳푸를 방문한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네 부모님의 '일본 여행했다'는 '온천 다녀왔다'로 통하는 듯했다. 화산이 많은 섬나라답게 수많은 온천 숙박시설이 있는 것은 물론이요, 입욕할 수는 없지만 특이한 컨셉을 가진 온천들을 둘러보는 일은 정말 '일본스러운' 일이었을 듯하다. 심지어 이름도 '지옥'이라니. 20대인 나 역시도 신기하고 신선한 경험이었기에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만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벳푸의 정석 관광지이긴 하지만 오이타에 오면 꼭 들러봐야 할 지옥 순례였다. 여러분도 코로나가 끝나면 꼭 한 번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oita.jp)

벳푸 지옥순례 정기 관광버스(別府地獄めぐり定期観光バス)

- 추천대상 : 뚜벅이 여행자로 편하고 빠르게 모든 지옥을 둘러보고 싶은 분 (일본어를 알면 금상첨화!)
- 이용요금 : 성인(고등학생 이상) 3,900엔, 중학생 3,000엔, 어린이(초등학생 까지) 1,950엔
- 탑승장소 및 시간 : 기타하마 버스센터(09:15/13:55) 또는 벳푸역 (09:20/14:00) / 사전예약 필수
- 소요시간 : 약 3시간(도보 약 1시간, 자유시간 포함) / 문의전화 : 기타하마 버스센터 0977-23-5170(일본어)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4·5월(제5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3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4·5월(제5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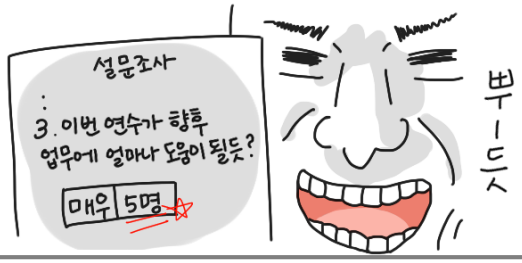
4화

강좌시간은 총 6시간 30분.
혼자서 이 긴 시간동안 계속 말할수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의 일정
- 10:00 ~ 10:50 자기소개·한국의 교통
- 11:00 ~ 11:50 한국어 듣기연습
- 16:00 ~ 16:30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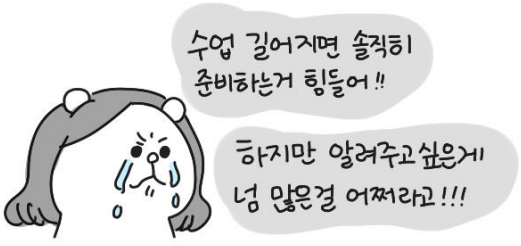
참가자들과 주거니받거니 하다보니
의외로 할만 하더라(?)

다들 질문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는 강좌가 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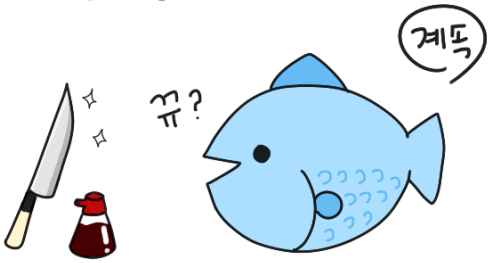
나에게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6시간 미만 수업이 짧게 느껴지게
되어 버렸다는 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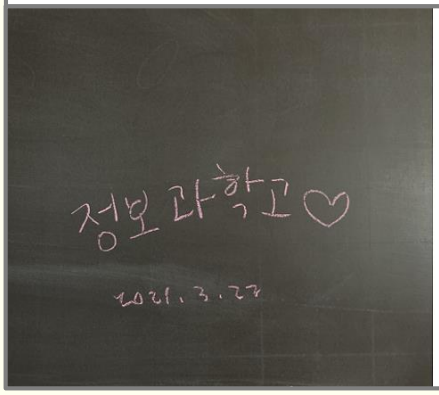
얼마전에 다녀온 학교출장강좌때도
순식간에 45분이 끝내버렸다(웃음).



뭐, 결과적으로 일에 잘 적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다행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3
짧았지만
뿌듯했던
출강